

# 신안 자전거 천국으로 우뚝섰다

신안군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중인 '1004 섬 자전거 투어'가 전국 동호인들과 여행객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1004섬 자전거 투어는 신안군이 펼쳐고 있는 관광활성화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해양관광시대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바다를 품은 섬 자전거길'에 1004섬 자전거길 8개 노선 전체가 선정됐다.

자전거길 선정은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섬 지역의 숨겨진 자전거 길을 발굴해 자전거 동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전국에서 추천받아 13개 지자체, 30개 섬 23개 노선이 선정됐다.

1004 섬 자전거투어는 총 500km로 신안의 12개 섬, 8개 코스로 조성돼 있다.

제1코스는 신안군청에서 송공항까지 18km 해안도로 구간으로 방조제길이 아름다운 '암해도'다.

슬로시티 '증도'는 우전해변을 끼고 한반도 해송숲을 따라 태평염전 염생습지와 염전길, 짚뽕어, 농게, 칠게 등 갯벌생물이 가득해 느끼게 달려도 더 매력적인 코스로 환영받고 있다.

'임자도'는 눈부신 대관해변이 끝없이 펼쳐지며,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자전거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섬 여행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신안군에서 운영중인 '1004 섬 자전거 투어'를 즐기고 있다. /신안군 제공

## 행안부 '섬 자전거길'에 8개 코스 모두 선정

### 관광활성화 성공모델...해양관광 새 트렌드 각광

지로 각광받고 있는 '자은·암태도'는 옛 노도길을 따라 넓은 들밭과 수려한 산세, 멋진 해변이 하모니를 이룬다.

'말금·안좌도'는 수화 김한기 화백의 발자취를 따라 중부권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한눈에 굽어보며, '비금·도초도'는 하드해변을 비롯해 내촌마을 돌담길, 시목해수욕장 해송숲길 등을 둘러 볼 수 있다.

'흑산도'는 열두구비 고갯길, 하늘 위

에 떠있는 듯한 하늘도로를 돌아 아름다운 흑산군도를 조망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평화의 섬 '하의도'와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신의도'는 삼도대교 개통으로 이곳을 둘러보려는 동호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안군은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인센티브 제공과 투어 상품 운영, 사이클링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전거길 정비와 안내판 설치, 자전거 여행에 특화된 지도와 가이드북을 제작해 홍보하고 모바일 앱을 업데이트 하는 등 손님 맞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가이드 배치와 회수차량 투입, 안전 공제 가입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자전거 메카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박우량 군수는 "느리고 불편하지만 깊이 있게 섬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으로 설계된 신안 1004섬 자전거길에서 오감을 만족하고 힐링하기 바란다"며 "자전거 여행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기자

## 다산박물관 '장난감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 국립민속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선정

강진 다산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운영되는 '장난감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교육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버스가 다산박물관에 상주하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박물관을 방문하고 신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옛 민속 장난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시대별 장난감 만들기 체험과 실재자동차

만들기,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전시버스 관람 등이다.

또 옛날 만화영화인 로봇 태권V 시청, 드론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된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이며, 초등학교 또는 7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서 단체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박물관 홈페이지(www.dasan.gangjin.go.kr)와 다산박물관(061-43039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한태선 기자

## 목포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베트남·인도네시아서 수출상담

목포시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지역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지원기관(목포시, 전남도 중소기업진흥원)으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이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는다.

시장 개척단은 사전 발굴·매칭된 바이어와 개별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장 조사를 병행한다.

이 지역은 한류 열풍이 거세고 높은 시장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한국기업에 우

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곳이다.

참가 기업은 목포시에 분사 또는 공장을 둔 수산식품 수출기업 5개사(청해S&F, 환길산업, 이스턴푸드, 엠업푸드, 아사쿠라식품 코리아)다.

총 10개 품목(북반자김, 해초무침, 김 스프레드, 건조매생이, 구운 김 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산식품 수출 대상국이 중국과 일본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신규 시장을 탐색하고 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동료의원 성희룡' 목포시의회 진흙탕 싸움

### 제명 의원, 피해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 진정·고소

목포시의회의 '동료의원 성희룡' 파문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성희룡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이 제명된 가운데 이 의원이 피해 여성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진정·고소하고, 시의회는 진정을 인용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성희룡 의측이 제기되면서 제명된 A의원이 B여성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

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 등을 논의기로 했다.

목포시의회 한 의원은 "A의원이 제명되기 전 B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의정단체 회의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B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B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A의원은 지난 4월 의원 연찬회 저녁 자리에서 "B의원이 이를 뺏아 술을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소주를 입에 흘려부어 넣었다"는 등 4가지 유형의 성추행 혐의를 진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가 형평성을 내세워 B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천박한 결정"이라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A의원의 징계를 요구해왔던 목

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강력반발하며 진정서를 펼칠 예정이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준 공동의장은 "피해 여성의원의 윤리특별위 회부는 시의회가 A의원의 구하기에 나서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의장은 "이번 조치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맞불작전"이라며 "B의원의 성희룡을 묵인한 다수의 시의원에 대해서도 파국으로 몰고가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B의원은 A의원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A의원도 B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완도해양어조합법인 최근 세모가사리와 건다시마 등 해조류를 대만으로 수출했다. /완도군 제공

## 완도산 해조류 대만 첫 수출 결실

### 완도해양어조합법인 건다시마 등 선적

완도산 해조류가 대만에 첫 수출됐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해양어조합

법인은 최근 세모가사리와 건다시마 등 완도산 해조류 6만 달러 상당을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선적을 마쳤다.

완도해양어조합법인은 지난해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대만 가오슝 수출상담회에 참가했으며,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가오슝 K-FISH 사이의 연계 협력을 통해 수출 결실을 맺었다.

수출계약을 맺은 대만의 신초실업유한

회사는 한국과 일본 식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다.

이번에 수출되는 세모가사리는 청정 해역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해조류로, 대만에 수출된 것이 처음이다.

임영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완도해양어조합법인은 일자리 교육과 창업, 제품 개발까지 센터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의 우수한 모범 사례로 이번에 대만 수출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환경실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최선'

### 영암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



영암군이 환경실무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 (사진) 2대를 도입해 이달 말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한국형 청소차는 지난해 환경부에서한

경실무원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우리나라의 작업환경과 지형 등을 감안해 개발한 차량이다. 운전자가 차량 사방을 확인할 수 있는 360도 어라운드뷰를 비롯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차량

내부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차량외부스피커를 통한 운전자와 작업자 간 의사소통 등 환경실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한국형 청소차 도입으로 환경실무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등에 대한 예방접종 등 환경실무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브릿지 의료인회 비금면 의료봉사

국제의료봉사 단체인 광주 브릿지 의료인회(회장 정성남)는 최근 신안군 비금면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맞춤형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활동은 치과, 내과, 이비인후

과, 정형외과 외 3개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여했다.

이시영 회장은 "폭염에도 비금면을 찾아준 브릿지 의료인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완도 읍·면 다문화가정 간담회

완도군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2개 읍·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강진노인대학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 개장

강진군은 최근 노인복지관에서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 개장식을 가졌다.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은 기존 노천 게이트볼 구장 자리에 연면적 500㎡의 지상 1층 철골 구조로 지어졌다.

박종득 노인회장은 "그동안 비나 눈이 오면 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생겨 날씨에 상관없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